

북한의 도서관 건축유형과 특징

Architectural Type and Special Feature of Libraries in North Korea

송 승 섭(Sung-Seob Song)*

목 차

- | | |
|---------------------------|-------------------------|
| 1. 서론 | 3. 4 군중도서관의 기본 설계 및 현황 |
| 2. 북한의 도서관 개관 | 3. 5 대학도서관의 설계현황 |
| 2. 1 도서관의 종류와 지휘체계 | 4. 인민대학습당과 도서관 건축의 특징분석 |
| 2. 2 도서관 현황 | 4. 1 인민대학습당 |
| 3. 북한의 도서관 건축관 및 기본설계 현황 | 4. 2 군중도서관 |
| 3. 1 북한의 건축관과 변화과정 | 4. 3 대학도서관 |
| 3. 2 평양 인민대학습당의 건축적 의미 | 5. 결론 및 제언 |
| 3. 3 지역별 인민대학습당 현황과 기본 설계 | |

초 록

이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격인 북한의 인민대학습당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지방의 인민대학습당, 남한의 학교(학생)도서관과 공공(성인)도서관을 결합한 형태의 북한의 군중도서관,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기본 설계형태와 외형 및 구조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 설립배경 등 관련문헌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건축의 외형과 설계를 갖게된 역사적 배경과, 큰 틀에서의 우리나라 도서관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ABSTRACTS

This study, firstly, investigates the basic design type and special features of the shape and structure of The Grand People's Study House in North Korea which corresponds t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South Korea and the people's study house in the provinces that was unknown until now, the public library of North Korea with the combined type of school(student) library and public(adult) library in South Korea, and university libraries. Secondly, by analyzing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documentary records and others, we research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present architectural type and design, and the general difference from libraries in South Korea.

키워드: 도서관 건축, 도서관 설계, 북한 도서관, 인민대학습당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선임사서, 송의여대 겸임교수(libsong@unikorea.go.kr)
논문접수일자 2003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3년 3월 13일

1. 서론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가 지속되고 교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북한에 관한 연구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아직은 경제 협력이나 북한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보기술분야 등 일부에 집중되고 있으나, 개개의 학문분야에서도 향후 남북한간의 교류 가능성이나 통일이후를 염두에 두고 단순한 기초조사부터 장기적인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관 사업 분야에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여기고 북한의 인민대학습당 총장 등 관계자들을 여러 경로로 접촉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분야에서도 필자를 비롯한 소수의 연구자들이 북한 도서관 및 남북한 학술교류에 관해 여러 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으나, 질적인 면을 떠나서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제한적이지만 10여년 간 북한도서관의 현황과 운영체계, 북한도서관의 발전과정에 김일성이 미친 영향,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체계와 도서관 전산화현황, 북한자료의 수집과 관리 등 북한도서관과 관련된 분야별 연구를 계속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서관과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과 운영체계, 발전과정에 나타난 북한 도서관의 역사성과 철학, 사회주의권 국가가 갖는 특징적인 학술정보 유통체계, 국내에 입수되는 북한자료의 성격과 운용상의 문제 등 북한의 도서관과 학술정보 전반에 걸친 기초현황들을 정리해 왔다.

본 연구도 이러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의 연

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직까지 연구논문의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북한 도서관의 건축분야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구하고자 계획되었다. 도서관 건축은 오랜 역사를 가진 건축유형의 하나이며, 역사적 변천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그 외형과 공간구조의 다양한 양상을 만들어 왔다. 따라서 50년 이상 이념적 역사적으로 다른 건축 문화를 형성해 온 남북한간의 도서관 건축물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북한의 인민대학습당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지방의 인민학습당, 그리고 북한의 군중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기본 설계형태와 구조상의 특징을 폭 넓게 살펴보고, 다음 전체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의 건축 외형과 설계를 갖게된 역사적 배경과, 우리나라 도서관과의 차이점을 큰 틀에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선행 연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원전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에 주력했다. 또한 도서관 건축을 다루자면 필수적으로 건축학 및 다양한 인접 학문의 전문적 분석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연구 대상을 찾아내고 내용 분석에 사용된 기본 문헌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계간으로 발행된 북한의 대표적인 건축관련 학술지인 '조선 건축'이며, 관련 평가와 관련해서는 조선대백과사전과 문학예술사전, 그리고 북한의 문화시설관련 국내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2. 북한의 도서관 개관

2.1 도서관의 종류와 지휘체계

북한의 국가도서관 체계는 조선로동당 교육위원회의 정책과 지휘아래 내각 교육성의 교육위원회로부터 각 지역 및 지방도서관에 이르게 되는데, 지방 도서관은 해당 지역의 행정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다. 특히 다른 부처와 달리 도서관은 중앙 당 및 해당지역 당 위원회로부터 철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출판물이 교육과 함께 선전, 선동의 정치도구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 문제는 인민대학습당과 조선도서관협회에서 맡아서 지도, 감독하며, 납본관리는 국가서적관¹⁾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진다.

북한의 도서관은 도서관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해당하는 군중도서관과, 대학도서관과 같은 학술기관 성격의 과학도서관으로 크게 대별된다. 군중도서관은 다시 소속별로 성인도서관과 학생도서관으로 구분되는데, 1990년대 초부터는 성인 및 학생 병설 도서관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도서관도 소속에 따라 종합과학도서관과 전문과학도서관으로 나누어지는데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은 종합과학도서관에 속하고, 일

반 다른 대학도서관은 전문과학도서관에 속해 있다. 이 점을 통해 김일성종합대학이 대학의 중심에 있으며, 일반 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망에 따라 도, 시, 구역, 군, 국가도서관으로 연결된 국가도서관망과 당, 정권기관, 공장, 학생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기관·기업소 도서관 망으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도 농촌도서실과 각종 조합도서실은 사회협동단체도서관망으로 통합되어 대상에 따른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조선대백과사전(6) 1998, 250).

2.2 도서관 현황

북한의 도서관 현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교육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양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교육은 크게 유치원 중심의 “학교 전 교육체계”, 의무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사회교육”으로 나누어진다(조선중앙통신사 1997, 220).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로는 공장, 기업소 등에 부설된 기능공학교,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의 형태와 각 대학의 통신 교육망의 형태가 있다.

북한의 도서관은 이러한 교육체계 하에서

1) 국가서적관은 평양에 위치하며, 1948년 2월에 창립된 일종의 보존도서관이다.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 도서, 잡지 등 모든 출판물을 수집하여 영구 보존하는 국가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과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북한에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의 일정 부수는 이 곳에 납본되어 보관하게 되어 있다. 모든 출판물들이 연대별 출판사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해방이전의 각종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고문헌과 사료들이 과학적인 관리 기법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National Archives 나 우리나라의 정부기록보존소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선대백과사전(3).1996. pp113-4.참조).

학교교육을 보충하고,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기능한다.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교육기관은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격인 “인민대학습당”²⁾이다. 이 인민대학습당은 그 연간활동의 내용이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년감을 통해 매년 내외에 보도되고 있고, 주요 관광코스로도 인기가 있을 만큼 북한으로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서관이다. 북한은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을 기점으로 지방의 인민대학습당, 그리고 도, 시, 군별로 각종 도서관을 국가교육망으로서 연결시켜 놓았다. 북한은 현재 도, 시, 군별 소재지와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 각종 학교 및 농촌 등의 도서관과 소규모 도서실을 포함하여 1만 5천 여개의 도서관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인민대학습당은 정치교양과 학습, 종합적인 문화공간, 그리고 국가의 전반적인 도서관 체계를 지휘, 감독, 지도하는 국가 대표도서관으로 기능한다. 이에 비해 일반 도서관은 시, 군별로 조직되어 정치교양과 학습위주의 교육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규모는 일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빈약하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북한의 도서관 건축관 및 기본 설계 현황

3. 1 북한의 건축관과 변화과정

북한의 도서관 건축물은 크게 인민대학습당과 일반 도서관으로 나누어진다.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것은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이지만, 지방의 소규모 인민대학습당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서관은 역시 도·시·군에 있는 군중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다.

북한의 인민대학습당 및 각종 도서관 건축물의 건립 배경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건축관이 형성된 시대적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건축 문화는 과거 소련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도되었던 사회개조 수단으로서의 건축의 역할이 해방과 함께 수립된 북한정권 하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북한정권 역시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사회기간시설의 정비와 함께 인민에 대한 계몽과 선전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건축물을 사회주의 체제의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내기에

2) 인민대학습당에 대한 북한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방대한 도서와 학습실 그리고 유능한 강사를 갖추어 놓고 과학기술문화지식을 보급하고 학습시키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대문화전당.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사상교양의 거점이며 과학, 기술, 문화지식보급의 전당이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중심지로서의 사상문화교양기관이다. 혁명의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일떠선 인민대학습당은 형식과 내용, 규모와 설비에서 높은 수준을 보장한 대기념비적 창조물이다.” (사회과학출판사 1992 참조)

3)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회의 총회 리근모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1987-1993) 계획에 대하여”(1987.4.21)와 당 중앙위 제6기제21차 전원회의, “제3차 7개년(1987-1993) 계획수행 정형과 당면한 경제건설 방향(1993.12.8)”의 ‘도서관’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질적 문제를 떠나서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15,000개의 도서관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졌다.

해방 이후에 소련의 지원 하에 성립된 북한 정권에서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건축된 건축양식은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고전적 건축양식의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해방과 함께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소련은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국가체제를 갖추도록 각종 건축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일제 강점기하에서 식민지 경영을 위한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양의 경우에는 국가경영을 위한 공공건축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소련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많은 기간시설들이 건축되었는데,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병원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들 건축물뿐만 아니라 각종 극장과 학교 및 호텔 등의 건축물도 신고전주의양식으로 지어졌는데, 이는 당시 소련사회를 지배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신고전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문제에 봉착했다.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은 유럽의 문화예술 풍토 속에 있었던 소련에서는 대중에게 친숙하게 이해되는 예술양식이자 삶의 양식이었지만, 문화적 풍토를 달리하는 북한에서는 매우 낯선 양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를 통해 조선민중을 억압했던 식민지 시대의 지배기구 건축물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던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북한의 건축형태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1954년 김일성이 제기한 '민족적 건축예술론' 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론적 내용은 '전후 복구기에 새로운 건축예술을 창조하는 데 있어 선조들의 건축예술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민족적 특성을 현대적 미감에 맞추어 재현해야하고, 건축설계는 민족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⁴⁾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모든 건축물들이 근로 인민의 요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족형식이란 '자기 민족이 좋아하고 자기 민족의 구미에 맞는 건축형식'으로서, '건축은 자기 나라의 지역 및 기후 특성과 자기 민족의 생활감정과 구미에 맞게 창조되며 발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김일성의 건축관은 뒤에 '건축을 우리식으로 창조하여야 한다'는 김정일의 주체건축론으로 이어졌다.

민족적 건축예술론은 건축의 민족적 특성은 계급적 성격을 띠며, 건축의 사회주의적 내용은 민족성을 갖게되므로 그 실현 방식과 수단으로서의 형식도 민족성을 띠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1980년 중반이후부터 제기된 '건축창조에서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옹기 결합시켜야 한다'는 주체건축론에 수용되어, 주체건축이 전통건축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문화시설에서 서구의 국제주의 건축경향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을 수 있도록 변화, 발전하였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12-14).

이 주체건축론은 1991년 김정일의 '건축에

4) '민족적 건축예술론'은 김일성이 1954년 3월 26일 전국 건축가 및 건설기술자대회에서 연설한 '전후 복구 건설에서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임무'에 주된 내용이 형성되어 있다(김일성저작집8, 1980. pp.351-360. 참조).

술론' 발표를 계기로, 북한의 건축예술 전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김정일 1992). 현재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은 북한 건축에 관한 전반적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상예술성과 실용성,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의 결합'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효용성과 경제성보다는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주체사상탑, 개선문 등 대형 건축물들을 집중 건립해 왔으나, 김정일의 '건축예술론' 발표 이후에는 실용성이 가미된 건축물들을 본격적으로 건립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건축물은 종전의 '민족적 건축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배합한 건축양식에서 90년대 이후 '실용성과 현대적 건축미'를 살린 조형적으로 다양한 건축양식으로 변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연합뉴스 2002).

3. 2 평양 인민대학습당의 건축적 의미

1) 개관

인민대학습당은 북한의 수도 평양의 한복판 남산재(중구역 남문동 김일성광장 서쪽 언덕)에 있다. 김정일의 주도 하에 불과 1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다. 1982년 4월 1일에 개관되었는데,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일성광장주석단 바로 뒤에 조선식 지붕의 전통양식으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건물이다.

이 건물의 외관을 보면, 연건평 10만㎡에 건축면적 23,000㎡, 건물의 높이는 63.56m, 너비는 150.8m, 길이는 190.4m이다. 건물은 10개의 동으로 된 10층 건물로써 학이 날개를

펼치고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34개의 푸른색 지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지붕은 무려 75만장의 청기와로 덮여져 있다.

2) 내부시설과 이용 현황

5,000석의 열람실, 3,000만권의 소장공간, 800석 규모의 강의실 및 시청각실, 과학기술 정보센터, 기초과학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강의실, 외국의 기술도서를 테이프에 번역 녹취하여 테이프와 도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녹음강의실, 음악강의실 등 교육적 기능을 갖춘 많은 학습실과 강의실이 600개의 방에 배치되어 있고, 200명의 번역집단, 200명의 강사와 800명의 사서가 교대로 근무하며, 이를 지원한다. 야간과 일요일에도 개관한다고 한다. 서고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관계서적, 사회과학, 문학작품, 기술공학, 특수기술문헌을 비롯한 북한에서 발행된 각종 출판물들과 기술 문헌 및 외국의 과학기술도서, 정기간행물 등이 보관되어 있다. 전체 장서의 75% 이상이 과학기술계통이며, 인문사회과학분야는 25%에 불과하다.

하루 수용능력은 12,000명 선으로 이용자들은 개별적인 전공분야에 따라 강의도 받고 열람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비슷한 용도로서 17살 이상의 공민권을 갖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일종의 국가 중앙도서관 내지 종합사회교육기관으로 평양 시민뿐만 아니라 전 지역 전체 주민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다.

3) 건물의 특징과 상징적 의미

1980년대 초에 건립된 도서관 건축물로서

는 그 규모가 세계적이라는 점과, 평양시의 가장 중심부인 남산재 언덕에 자리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입지면에서 수도의 중심부에 김일성광장과 함께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놀며 공부할 수 있는 사회주의의 전당'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조선건축양식으로는 가장 큰 건물이며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다.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소위 민족적 건축예술론을 대표하는 건물로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미국의 의회도서관 못지 않은 건물을 만들겠다는 권력자의 의지가 나타난 곳이다. 인민대학습당이 건설된 이 시기는 평양산원(1980), 창광원(1980), 주체사상탑(1982), 칭류관(1982), 빙상관(1982), 개선문(1982) 등 오늘날의 평양을 대표하는 많은 기념비적 건축물이 솟아났던 건축의 혁명기로 불려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인민대학습당은 고유의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측면에서 성공작이라는 국내 전문가의 평가도 있었다.⁵⁾

이 건물은 외적 규모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시설과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고 있다. 건물의 정면 홀에는 붉은 노을이 비친 백두산을 배경으로 김일성의 석고상이 있고, 측면 큰 홀에는 김일성이 백두산지구 진달래꽃 숲 속에 서있는 영상이 자리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건축물은 김일성광장 주변의 건물들과 균형을 맞추고 도시구성 중심부의 주건물로서 설계되었다. 특히 민족적 정서와

현대적 미감을 고려한 조선식 지붕양식으로 특색있는 건물외양을 낳고 있다. 이 34개의 크고 작은 청기와 지붕들은 건물의 뒷부분으로부터 나오면서 점차 높이 형성되는데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민족의 슬기로운 기상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인민대학습당의 건축형태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즉, 건물의 중심부분에 배치된 큰 지붕을 가지는 몇 개의 건축군으로 묶어 주건물을 형성하게 하고, 그 주위에 회랑 형식의 몇 개의 건물군을 둘러놓아 마치 여러 동의 건물이 같은 공간상에서 하나의 건축군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구성한 것이다. 또한 기념비적 성격이 뚜렷하고 민족적 특성이 짙게 풍기도록 배지붕, 교차합각지붕, 덧박공지붕, 회랑지붕을 조화롭게 묶어주면서도 덩어리가 간결하면서도 점잖은 느낌을 안겨주도록 구성하였다. 인민대학습당은 조선식 건물의 구색에 맞게 지붕의 평면비를 1:1.13~1:1.25로 쓰고, 기둥사이 간격과 기둥 높이를 1:1~1.2범위로 정함으로써 건축미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하였다. 외형에서 기본을 이루는 지붕색을 청기와색으로 하고 그와 어울리도록 두공은 연등색, 서까래와 부연에는 보라색 계열로 마감하였으며, 기둥과 난간은 회백색으로 처리하였다. 건축장식에서도 아래 부분은 입체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양각장식으로, 위로 올라 가면서는 음각장식과 색장식으로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사회과학원 1993, 724-725).

5)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5&res_id=11487, 2001년 10월 10일 자 참고. 경기대 안창모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양대극장이나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양식의 건축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측면에서 성공작으로 보이며 북한 현대건축의 중요한 성과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3. 3 지역별 인민학습당 현황과 기본 설계

북한은 소위 혁명적 학습기풍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내세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학습을 장려하고, 정치학습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평양의 인민대학습당 이외에도 원산인민학습당, 함흥인민학습당, 황해남도인민학습당 등 지역별로 인민학습당을 만들어 놓고, 정치교양 학습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본고에서 처음 조사된 지방의 인민학습당 현황과 기본 설계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⁶⁾

1) 원산인민학습당

원산인민학습당은 강원도 원산시의 중심부인 동명산 중턱에 세워진 4각형 모양의 5층으로 된 대칭건물이다. 1993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완공연도에 대한 기록은 없다. 건축면적은 1,455㎡로, 연 건축면적은 7,590㎡이고, 수용능력은 800석이다.

건물의 설계를 보면, 먼저 1층과 2층 사이는 건물의 양쪽 벽 사이를 강한 수평띠로 잡아주면서 통창으로 만들어 건물을 시원하면서도 무게 있게 형성하였다. 또한 벽 모서리부분을 유리 블럭으로 장식하여 건물이 산뜻한 감을 나타내었다. 건물의 2층부터는 1층보다 1.2m 앞으로 돌출시켜 주고 덧기둥을 붙여 건물의 입체감을 부각시켰다.

평면용적 공간은 서고부분, 열람실부분, 행정관리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는데, 서고부분은 건물의 중심과 뒤쪽에 배치하였고, 장서는 80만부 소장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이용편의를 위해 열람실부분은 서고부분을 중심으로 그 둘레에 배치하였고, 채광홀을 두었다. 열람실부분에는 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부문 등 부문별열람실을 두었고, 행정관리부분은 1층에 집중배치하고 매 층마다 관리원실과 사무실이 설치되었다. 1층에 넓은 홀을 만들어 양쪽에 계단, 서고, 목록실, 대출실, 휴게실, 관리원실, 식당, 주방, 화장실, 승강기실이 배치되었다. 2층부터 5층까지 서고와 열람실, 녹화실, 녹음강의실, 사무실, 양호실이 있으며, 5층에는 별도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200석의 과학강의실도 두고 있다(김종윤, 고태성 1993, 84-85).

2) 함흥인민학습당

함흥시의 동흥산 기슭에 4각형 모양의 5층으로 된 대칭 건물로 만들어졌다. 주변이 개방되어 있고, 다른 건물들과 멀리 떨어져있다. 1994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설립연도에 대한 기록은 없다. 건축면적은 2,000㎡이며 연 건축면적은 10,000㎡, 그 수용능력은 1,000석이고, 강의실의 총 수용능력은 800석이며, 장서 소장 능력은 100만부이다.

건물의 외양은 전면 기단 층이 높고 중심에 화단이 있는 넓은 계단으로 현관이 앞으로 돌

6) 인민학습당에 대한 실체가 확인된 것은 앞서 소개한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이 전부이고 다음에 소개하는 인민학습당의 존재는 문헌 상으로만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그 문헌도 1990년도부터 1997년까지 계간으로 발행된 “조선건축(평양, 공업출판사)”에 소개된 설계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여기에서 소개한 인민학습당의 완공 상태와 현재의 이용현황은 알 수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계도면은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했다(이하 다른 도서관 설계도면도 같음).

출되어 있다. 1층과 2층 사이는 원산인민학습당과 설계형태가 같고, 3층과 4층 부분은 벽과 창으로 질적 대조를 조성하고 5층 역시 연속 통창으로 만들어졌다.

내부 구성을 보면, 열람실부분의 1층에 열람실, 목록실을 배치하고, 2층과 3층의 관통홀은 대열람실이나 회의실, 진열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4층과 5층의 관통홀은 종합강의실과 영화감상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5층 주변부에 환등 및 녹음강의실, 작은 식당도 배치되었다. 장서부분에서는 서고를 매 층에 배치하고, 거기에 책운반콘베어를 설치하였다. 관리운영부분은 1층에 기본으로 배치되었으며 양쪽 측면의 뒤쪽에 출입구를 두고 필요한 실들을 집중 배치하였다. 중심 홀에는 관통부분을 따라 원형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의 큰 공간으로 형성하였으며, 양쪽에 계단실과 승강기 등이 배치되어 있다. 2층과 3층, 4층과 5층을 하나의 공간으로 관통시킨 관통 홀의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여 공간의 입체성과 다양성을 부각시킨 것이 특징이다(방일선 1994, 61).

3) 황해남도인민학습당

황해남도 해주시의 중심부인 남산공원에 1995년에 건설된 황해남도인민학습당은 건축면적 1,426㎡, 연건축면적 7,890㎡인 7층건물로서 80만부의 장서능력과 800명이 일시에 열람할 수 있는 열람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 학습당은 기본부분인 열람실과 서고를 비롯하여 옷보관실, 식당, 강의실, 문답실, 독자모임실, 서지통보실, 분류정리실, 제본실, 전자계산기실, 전자복사실, 번역복사실, 도서

전시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이 해주시의 중심부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건물의 외관에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고 한다. 건물의 정면은 주변 소년회관 쪽으로 놓고, 기본 건물 본체 앞에 2층으로 된 보조건물을 잇달아 연결하여 기단처럼 보이게 하여 건물을 안전하면서도 무게 있게 하였다. 건물의 기념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판부를 중심으로 좌우부분을 대칭으로 놓고 현관 앞에 여러 개의 계단을 형성하여 놓았다. 기단층의 1층 부분은 덧기둥을 가진 대형창으로 처리하였으며 1층 부분은 창면적이 적은 벽면으로 해결하였다. 기본건물은 연속창을 형성하여 수평을 진하게 강조하고, 좌우 끝 부분에 돌출벽을 주어 수직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이 건물이 의도하는 목적성이 외부에서도 잘 나타나게 되었으며, 광장의 면모도 더 한층 돋구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용자가 많은 강의실이나 독자모임실은 2층으로 된 기단층 부분에 설치하고 열람실들과 서고는 7층의 기본건물에 배치되었다. 열람실 층고는 4.8m, 서고부분 층고는 2.4m이다. 열람실들이 통창으로 만들어져 공간의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열람자들의 편의를 위해 식당과 옷보관실, 휴게실, 화장실 등도 설치되어 있고, 건물의 양쪽에 승강기실을 각각 1개씩 두고 있다(김태희 1995, 56-57).

3. 4 군중도서관의 기본 설계 및 현황

북한은 군중도서관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시, 군급 도서관을 기본으로 하는 표준설계안을 마련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

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시, 군급도서관은 성인도서관, 학생도서관, 성인 및 학생 병설도서관으로 구분되는데 권장 사항으로 성인 및 학생 병설도서관의 표준설계안이 보급되고 있다.

이 기본 설계안은 먼저, 도서관의 능력은 장서수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공공건물의 능력단위는 그 건물의 사명을 집약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고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보존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들은 도서의 보관과 관외대출, 열람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강의와 연구토론 및 발표와 같은 사회교육교양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면모와 규모를 표시하는 열람석수도 장서수와 함께 능력단위에 포함되어 있다. 셋째, 북한의 시, 군 급 도서관의 능력규모를 해당지역의 규모와 기관, 기업소, 교육기관의 배치, 주민구성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초하여 보유해야 할 장서수를 기준단위로 하고 그에 따라 수용능력을 정한다. 이에 따르면, 장서수가 12만부인 경우에 250석, 20만부인 경우에 300석, 25만부인 경우에 400석의 열람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도서관의 건축은 이 기준에 의해 규모에 맞게 표준설계가 작성되고, 기관별 형편을 설계에 반영하여 최종 완성하게 된다.

병설도서관인 경우에는 성인도서관과 학생도서관의 장서능력비율은 6:4로, 서고, 열람실, 기타 부분 실들의 비율은 1:1:1로 구성하였다. 서고는 m^2 당 250부를 기준으로 하여 로 작성고, 영상서고, 기본서고(자연과학, 사회과학)로 구성하였다. 열람실계획에서는 좌석당 면적을 성인열람실인때 2.5 m^2 , 고등학교 학

생열람실인때 1.8 m^2 , 인민학교 학생열람실인때 1.5 m^2 를 기준으로 하였다.

시, 군급 도서관의 평면 계획은 성인도서관부분, 학생도서관부분, 사무부분으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성인도서관부분과 학생도서관부분은 이용자 현관과 직원 현관, 서고, 열람실, 사무실을 따로 조직하여 기능상 완전히 구분되도록 계획되었고, 이용자 현관만 공동으로 해결하는 안도 작성되어 있다. 성인도서관부분에는 사회과학열람실, 자연과학열람실, 신문잡지열람실, 개별열람실, 녹음강의실, 종합강의실을, 학생도서관부분에는 인민학교학생열람실, 고등학교학생열람실, 소조실을 배치하였다. 사무부분에는 관장실, 수집정리실, 제본실, 서지통보 및 문답실, 경리실을 배치하였다. 그 밖에 휴게실, 야외 휴게 및 흡연장도 계획되어 있다.

도서관의 평면도식은 6m 4경간 계단 홀 중심식대칭형과 6m 2경간 홀 중심식비대칭형, 복도식대칭형으로 작성되어 있다. 6m 4경간으로 규모가 크게 고려된 안에서는 계단 홀을 관통공간으로 해결하여 모든 방들을 자연채광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서고를 아래 위층에 배치하여 그 기능적 연계를 나선형 계단으로 해결하였다. 이 다경간 도식이 열공학적으로나 채광조건상, 그리고 건설자재를 절약하는데 이점이 있으므로 기본안이 되었다(립태익 1992, 88-89).

이상의 군중도서관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회령시 인민도서관의 설계 시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회령시 인민도서관은 1993년 11월 30일 회

령시에 건설된 연 건축면적 2,800㎡의 4층 건물로 된 군중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에는 47개의 방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17개의 열람실과 9개의 서고가 있으며, 소장 장서능력은 30만부이다. 일시에 열람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은 500명이며, 매 열람실은 한번에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열람실 개개의 건축면적은 70㎡이다. 이 건물은 외부 건축모양을 단식으로 하여 상승감을 돋보이게 하였으며, 돌출된 건물 테두리는 3층과 4층의 수평연속창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 조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층에 수평창들을 율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건물은 전반적으로 웅장하면서도 경쾌한 감을 주게 하였다.

이 인민도서관은 건축요소와 세부처리에서도 조형적인 효과와 통일성을 잘 나타내도록 설계되었는데, 중앙현관에는 채양을 크게 하지 않고 발코니형식으로 채양을 돌출시켜주어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현관을 중심으로 대칭되게 형성된 궁륭식 벽면과 구호목을 형상하여 부각시킨 화강석벽판, 그 앞의 계단과 화단은 하나의 조형적인 효과를 이루면서 건물의 전반적 건축형성에서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다.

내부공간 형성에서도 도서관의 사명에 맞게 아담하면서도 정서적인 감이 안겨오도록 만들어 졌는데, 현관홀 앞부분의 양쪽 기둥에서 있는 큰 장식꽃병과 계단홀의 쪽무이장식벽은 내부공간을 보다 더 아담하면서도 특색 있게 장식해 주고 있다. 그리고 현관홀을 중심으로 1층부터 3층 사이에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열람실과 대출실, 서고를 그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따로 배치해 주고 다른 통로를 통해 이용하게 하고 있다. 4층에는 '김일성의 로작학습실'과 '김정일의 로작학습실',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는 학습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 종합강의실, 축소필름 열람실, 영사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4층에는 야외학습터도 있다(최영준 1996, 44-46).⁷⁾

3. 5 대학도서관의 설계현황

북한의 대학도서관은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에 설치한 도서관으로 대학생들과 교원들의 학습의 거점이며 과학탐구 기지로써 정의된다.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 김형직사범대학도서관, 김책공업종합대학도서관을 대표적인 대학도서관으로 자랑하고 있다.

북한의 대학도서관은 일반 도서관과 달리 중앙당선전선동부나 문예총국, 도(都)당, 도(都)행정위원회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소속 대학의 당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도 하에 있으면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북한에서의 대학도서관의 중요한 임무는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책읽기를 잘 조직하여 대학 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대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기술자, 전문가로 키우며 교원, 연구사들의 과학연구사업을 원만히 보장해 주는데 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은 그 규모에 따라 몇 개의 부서를 두고 필요한 출

7) 회령시 인민도서관 현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최근 발간을 준비중인 '조선지리백과'에 따르면, 그 전경이 공개되어 있으며, 설계대로 시공된 것으로 보인다.

판물을 수집하여 장서를 튼튼히 꾸리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조직한다.”로 되어 있다(조선대백과사전(7) 1998, 106).

이와 같이 북한의 대학도서관의 근본 목적과 기능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제 강점시기나 한국전쟁과 같은 혼란의 시기에 잔재 청산과정에서 소멸한 대다수의 인테리층을 대신하여 북한 주민을 계몽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교육 기관의 역할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장서 구성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들과 혁명역사에 관한 문헌들, 전문기술서적들, 문예서적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특징은 과학기술도서와 잡지, 교과서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대학생, 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열람사업과 관외대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신대학생들을 위한 통신대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 강좌, 학급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관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서전시회, 과학토론회, 읽은 책 발표모임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출판물에 대한 소개선전과 ‘새기술통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지활동을 통해 대학생, 교원, 연구자들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한다.

북한의 대학도서관은 전문과학도서관으로 기관 기업소 도서관망에 연결되어 있다. 북한의 대학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도서관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다만 북한의 대학이 우리나

라의 대학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기업소와 공장내의 대학이 많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는 공장대학이, 대규모의 협동농장과 수산사업소에는 농장대학이나, 수산대학이 부설되어 있어 소속기관의 이름에 걸맞는 대학명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종합대학이나 간부양성대학 등 이름 있는 대학도서관은 김일성과 당의 지대한 관심 속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 특히 지방의 대학도서관들은 국내의 대학도서관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장서나 시설, 인력 등이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귀순 대학생들은 증언하고 있다.⁸⁾ 다음은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도서관인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과 여러 대학도서관을 설계현황을 중심으로 소개한 것이다.

1)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은 1946년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 창설과 함께 평양시 대성구역 룡남동에 설립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의 최고 명문 대학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대학이며, 특별 관리되는 곳이니 만큼 대학도서관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도서관의 기본 목적은 교원들과 학생들의 학습과 과학연구사업에 두고 있다.

이 도서관은 북한 주민 기증운동을 통해 건어 들인 수 만권의 책들과 1947년 3월 외국에서 입수(이 때 리조실록 비치)한 5만 여권의 장서로 출발하였으나, 1970년 10월 20일 연건평 11,900㎡에 수백 만권의 장서능력을 가진

8) 이상의 내용은 탈북 인사와의 면담 기록을 통해 알려진 사실임.

서고와 1,000석의 열람좌석 등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과학도서관으로 새롭게 개관하게 되었다. 서고의 구성은 로작성고, 기증본서고 등 2층으로 이루어진 기본 서고와 여러 개의 보조서고, 학생열람실, 교원열람실, 정기간행물 열람실, 참고문헌열람실, 특수문헌열람실, 민족고전열람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⁹⁾

수백만권에 달하는 국내외의 사회과학, 자연 및 기술과학부문의 도서들과 문헌자료들, 정기간행물도 비치되어 있다고 하나 정확한 통계는 발표된 바 없다. 봉사업무는 열람대출 등 기본적인 업무와 함께 각종 출판물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색인목록 작성, 이동봉사, 참고서지봉사활동을 적극 진행하는 한편, 국제차독사업과 국제도서교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과학영화와 녹화 강의 등 시청각 자료 봉사활동과 과학토론회, 독서발표모임도 진행한다. 출판사업으로는 ‘과학도서관 자료통보’를 분기간으로, ‘교육통보’를 주간으로 발행하고 있다(조선대백과사전(4) 1996, 276-277).

2) 김책공업종합대학도서관

김책공업종합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더불어 북한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으로 이른바 명문대학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1991년부

터 대대적인 건물확장공사를 시작하여 1992년에 완성되었다. 이 때 도서관은 새로운 건축형식으로 된 9층의 대청 건물로 만들어져 재개관하게 되었다. 건축면적은 2,240㎡이며 연건축 면적은 20,220㎡이다.

도서관의 입면 구성은 낮은 지대를 고려하여 기단을 높이고 현관부는 앞으로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본관은 전체적으로 넓은 띠로 묶고 그 사이를 수평띠로 강조하였고, 통창으로 건물 전반이 산뜻하고 시원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도서관의 평면은 4각형으로 조직되어 있다. 1층 중심부 입구에 넓은 현관홀을 두고, 양쪽 끝에 계단을 배치하였다. 건물 중심에 서고를 배치하였는데 서고를 따라 복도를 구성하고, 복도 주위에 학생열람실, 교원열람실, 목록실, 화장실로 구성되며, 서고 뒤쪽에 계단과 승강기를 배치하였다. 도서관 2층 이상도 측면 외곽 쪽에 학생열람실과 교원열람실을 배치하고, 중심부에는 서고를 두고 있다. 그리고 서고 주변에 장서실, 사무실, 화장실을 배치하고 뒤쪽에 긴 중간형 복도를 통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채광홀이 마련되어 있다(리명혁 1997, 51).

3) 금강대학도서관

금강대학 도서관은 원산역사 앞 장덕산 기

9) 과거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을 방문한 바 있는 高哲義(1987, 455-556.)의 기록을 보면, “김일성종합대학에는 14학부, 8연구소, 대학원이 있고 12,000명의 학생이 배우고 있다. 도서관은 1946년에 대학 창립과 함께 개관, 1970년에 1,000석의 열람좌석과 200만권의 장서능력을 가진 4층 건물의 본관을 신축하였다. 현재 이 본관 외에 기숙사와 1호교사가 본관으로 되어있다. 도서관의 조직구성인 수집편성부(15명), 분류통보부(20명), 열람부(40명), 장서부(40명), 김일성주석 노작자료부(8명), 복사부, 사진부, 제본부, 재정부가 있고 100명의 사서(1급2명, 2급18명 포함)와 40명의 일반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장서는 1986년 현재 3,400종의 잡지를 포함 200만권이고, 장서능력범위를 초과하여 증축을 고려하고 있다. 정리에는 동관제정의 심진식분류법을 채용, 언어별로 분류목록, 서명목록, 저자명목록을 비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최근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

습에 1992년 준공되었다. 이 도서관은 대학구 내의 중심을 이루는 정문 도로의 축 위에 좁은 지대 조건을 고려하여 지하 1층, 지상 7층의 비대칭 구성으로 만들어 졌다. 금강대학 도서관 주변에는 본교사와 2호교사, 원산역사 등 비교적 큰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건축면적은 420㎡, 연 건축면적은 2,800㎡이다.

이 도서관은 기본교사와 평행을 이루면서 앞으로 돌출시켜 배치되었는데 탑 모양으로 형성되어 그 중심부에 강한 수직요소를 주어 상승감이 표현되어 있다. 맨 위 부분은 수평띠를 주어 건물에 무게감이 나게 하였다. 건물 오른쪽에는 4층으로 된 서고를 배치하여 높이 대조에 의한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였고, 현관부는 지형에 맞게 기단을 높이고 돌출시켜 건물의 중심부가 강조되었다. 서고는 위 부분에 처마띠를 돌려 수평을 강조하고, 건물 전반에 수평이음줄을 줌으로써 통일성을 나타냈다.

도서관의 평면은 도서관으로서의 사명을 고려하여 복잡성을 피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조직되었는데, 1층에는 현관홀, 접수실, 사무실, 대출실, 목록실, 열람실, 서고, 해포실, 제본실, 화장실, 계단실을 두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열람실, 서고, 목록실, 대출실, 화장실을, 5층부터 7층까지는 열람실과 화장실을 배치하였다(김수홍 1992, 51).

4) 화학공업대학도서관

함흥시의 회상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화학공업대학구획안에 따라 1994년 새로운 건축형식으로 5층건물의 도서관이 준공되었다. 5층으로 구성된 이 도서관은 12층의 교사와 연결복도로 이어지고, 높낮이에 의한 건축적인 대조

에 의하여 대학 전체의 건축형성에 입체성과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서관의 건축면적은 2,000여㎡, 연 건축면적은 10,400㎡, 건물의 길이는 57m, 너비는 32.4m이다. 그리고 열람실 수용능력은 1,000석이며, 장서 수용능력은 100만부이다. 이 도서관은 새 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성격에 맞게 시원하면서 상승감이 나는 조형적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건물 전체를 직4각형으로 구성하고 수직을 강조하였으며, 중심부분의 현관을 앞으로 돌출시켜 변화를 주었다. 1층과 2층사이에 강한 수평띠를 돌려주어 그것으로 건물전반을 묶어 줌으로써 건물에 안정감을 부여하였다. 정면의 양옆에 덧기둥 형식의 수직판을 세워주고 3층, 4층부분을 돌출시키면서 수직을 강조하여 줌으로써 건물에 변화성과 상승감을 부여하였다. 2층과 5층 부분을 전면 통창으로 해결하고 3층, 4층부분을 장식블럭으로 처리하여 음영적 대조를 조성하였다.

건물의 맨 위부분 처마는 넓은 수평띠형식으로 처리하고 장식이음줄을 주어 지나치게 무거운 감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5층에는 신문, 잡지 열람실, 환등강의실, 록화강의실, 종합강의실, 간이식당, 준비실, 창고, 화장실을 배치하였다(박명애 1994, 61).

5) 함흥정성대학도서관

함흥정성대학도서관은 함흥시 회상구역 정성동에 위치하고 있다. 1996년에 건립되었으며, 교사 및 도서관으로 만들어졌다. 이 건물의 층수는 5층이고 연건축 면적은 4,815㎡이다. 건물의 외부는 매 층에 수평띠를 강하게

주어 아담하게 형성하였다. 현관은 본 교사와 새 교사와의 조화관계에 맞게 본 교사쪽으로 치우쳐 배치하였다. 외부는 회백색 외장재로 마감하였다. 학생들의 학과학습에 편리하도록 본 교사와 도서관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건물의 1층에는 현관홀과 대출실, 목록실, 관장실, 사무실, 서고를, 2층에는 열람실과 복사실을, 3,4,5층에는 교실 및 합동강의실, 교원실, 교편물실이 들어서 있다(백철수 1996, 46).

6) 정준택경제대학도서관

정준택경제대학도서관은 대학구내의 야산 기슭에 1996년 건설되었다. 5층의 기본공간에 6층의 전망대 공간을 포함하여 연건축 면적은 5,200여㎡이고, 장서 수용능력은 30만부이다. 건물의 외형은 현관부와 좌우 덩어리를 앞으로 돌출시켜 건물 전반에 변화를 주고 전망대 부분을 한층 더 높여 비대칭으로 형성하였다.

건물의 특성을 살려 외부를 연속 창으로 처리하고, 창 사이에 수직 덩기둥을 줌으로써 무게 있으면서도 실내조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현대화수준에 맞게 열람실들과 서고들, 전자복사실과 복사실, 녹음강의실이 배치되어 있다. 직원들을 위한 사무실은 1층에 있고, 다른 층에는 부문별로 열람실들과 서고를 배치하였으며 제일 위층에는 발코니를 두어 독자들의 이용 편의를 고무하였다. 열람실은 대학생들을 위한 열람실과 교원, 연구사들을 위한 열람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1~4층까지 층별로 서고가 있으며, 주제별로 서고가 배치되었다. 건물의 내부는 밝고 은은한 회백색으로 처리되어 있다(허균 1996, 61).

4. 인민대학습당과 도서관 건축의 특징분석

4. 1 인민대학습당

인민대학습당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과 외관을 중심으로 한 건물의 특징, 그리고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다만 몇 가지 확연하게 들어 나는 사실과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과의 부분 비교를 통해 관련 배경과 그 차이점이 갖는 의의를 논구하고자 한다.

첫째, 인민대학습당은 그 규모에 있어 세계적인 도서관이다. 둘째, 평양의 가장 중심지에 대중적 접근성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셋째,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이른바 '민족적 건축예술론'을 대표하는 독특한 건축물이다. 넷째, 단순한 도서관 건물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회교육기관이며, 통신대학으로 사회주의적 우월성을 외부 세계에 홍보하고자 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로 만들어 졌으며,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인민학습당이 존재한다.

이상 인민대학습당이 갖는 대표적인 네 가지의 특징을 보았는데,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건축적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인민대학습당 건설에 대한 그들의 건축관과 시대적 상황을 통해 여러 사실들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의 건축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양의 건축물에 영향을 미친 사회주의의 도시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주의가 발생한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사회주의가 태동한 곳은 산업혁명으로 공업화를 통해 도시화와 자본화가 가장 앞섰던 영국이었다. 공업화에 기초한 산업혁명은 자본화와 도시화를 촉진시켰는데, 특히, 영국 런던의 경우는 자본주의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악(예: 스모그로 대표되는 도시환경의 악화와 가혹한 노동조건, 주택문제와 범죄 등)의 전 시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화 된 대도시의 사회악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태동한 사회주의는 가능하면 자본주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두 가지 기본 원칙을 만들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대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대도시를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은 지방도시를 육성하여 경제력이 일부 대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시설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은 지방도시의 문화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졌다. 평양이 수도로서는 인구 330만의 그리 크지 않은 도시로 설계된 것과, 북한이 우리나라의 도서관 현황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많은 도서관과 문화시설이 해방이후 골고루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도시 내에서 도심집중화를 지양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세웠으며, 도심 한가운데에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를 형성하지 않고, 가능하면 도시의 주요인프라 시

설을 도시 내에 고르게 분포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가시적인 정책은 해방 직후 주요 시설물 중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병원, 김일성종합대학 등 국가건설을 위한 기간시설의 분산 배치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편 김일성 광장에는 광장을 중심으로 정부청사 이외에 소위 '인민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인민대학습당과 조선미술박물관, 조선역사박물관 등 도서관과 박물관이 건축되었다.

이처럼 평양시 중심부의 경치 좋고 전망이 좋은 언덕에 인민대학습당과 박물관을 배치한 것은 개개의 건물의 외관 못지 않게 접근성과 편리성과 같은 입지조건을 매우 중요시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서울의 중심지이며, 주변 경관이 좋은 남산에 개관되었다가 현재의 서초동 부지에 재개관 된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 등 그 입지 조건만을 놓고 보면, 이용자 편의나 주변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확연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다음,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김일성의 '민족적 건축예술론'¹⁰⁾은 '새로운 건축예술을 창조하는 데 있어 선조들의 건축예술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민족적 특성을 현대적 미감에 맞도록 재현해야한다'는 것으로 이는 '건축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여야 한다'는 김정일의 주체건축론으로 이어졌으며, 그 과정의 하나가 인민대학습당으로 귀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혁명적 수령관을 통해 사회주

10) 앞 서 소개한 바 있는 1954년 3월 26일 '전국 건축가 및 건설기술자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문의 주된 내용임.

의적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정치적 배경이 전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주의적 건축관과 도서관을 답습한 일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주의적 건축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선식 지붕의 전통 양식과 현대적 미감을 결합시킨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발전시켰다는 점도 건축사적 의미부여가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단적으로 볼 때, 북한의 건축물은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주의적 건축관을 수용하면서, 북한체제 공고화의 도구로 변형,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으로 이 건축물은 김일성이 인민을 위해 지었다는 수령관을 가지적으로 외부 세계에 나타내려는 기념비적 건축물이라는 의미가 강하다.¹¹⁾ 이것이 인민대학습당이 세계적 규모의 건축물로 자리잡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의 건축물로서의 존재가치는 무엇보다 그 기능적으로 도서관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건축적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¹²⁾ 도서관의 외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지금까지 공간재배치와 보존도서관과 별관의 설치, 정보화의 보강과 함께 다양한 이

용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장 등 공간중심의 건축적 변화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 인민대학습당도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는 못 미치지만 일반 군중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크고 다양하다. 본 고에서 조사된 인민대학습당의 연건축면적은 7,590㎡-10,000㎡, 열람석은 800석-1,000석, 서고수용능력은 80만부-100만부 정도로 북한의 군중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보다 그 규모가 대단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의 공공도서관 규모의 평균치(연면적2,407㎡, 열람석566석, 도서수 61,720부)¹³⁾와 비교할 때도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념비적 성격의 건물로 계획되어 외형미를 중시하였으며, 내부에도 채광홀과 관통홀을 두어 입체성을 강조하는 등 화려하게 장식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시설면에서도 체본실, 번역봉사실, 도서전시홀 등을 둔 것도 특징적이다. 또한 아직까지 책운반 콘베어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국내 도서관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종합적인 사회교육기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문화관과 함께 운영되는 국내의 평생학습관과 비교될 수 있으나, 평생학습관은 그 태동과정의

11) 북한에는 인민대학습당 이외에도 파리개선문보다 11m가 더 높은 평양개선문(60m), 주체사상탑(170m), 만수산 언덕의 김일성 동상(20m), 류경호텔 105층(300m) 등 세계적으로 기념비적인 건물과 조형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김정일으로써 권력 승계과정에서 김일성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써 자신의 통 큰 스케일과 담대성을 나타내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생산적인 건물 축조로 인해 북한 경제는 더더욱 힘들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연합뉴스 민족뉴스취재본부편, 2000. 『김정일100문100답』, 연합뉴스, pp.81-84.).

12) 그러한 비판의 하나로 “국립중앙도서관 전면에는 열주(列柱)와 계단이 근엄하게 들어서 있다. 건물 현관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자는 권위주의적인 관청 건물의 예를 충실히 따랐다. 더구나 휠체어를 탄 이는 혼자서 들어갈 수도 없다. 콘크리트 뼈대의 외부에는 근엄하게 돌을 붙였지만 내부는 그냥 적당히 칸막이를 쳐서 책을 쌓아둔 것이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의 모습이다.”라는 기사도 있었다(동아일보1999/10/31, “서현이 본 우리문화-건축” 중에서).

13) 본 고에서 사용된 국내 도서관 통계의 평균치는 종류별 전체 누계치를 관종별 도서관총수로 나눈 것으로 2002도서관통계(한국도서관협회) 자료를 이용했다(이하 같음).

문제 등 아직까지 본질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근본적인 상호 평가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의 인민대학습당과 인민학습당에 대한 평가는 도서관 나름의 기능적 수행능력을 떠나 건축적 측면에서만 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대도시와 도심집중을 지양하는 사회주의적 건축관을 정책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인민대학습당을 가장 대중적인 사회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적 우월성을 가시적으로 외부 세계에 나타내려고 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로 자리잡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4. 2 군중도서관

북한의 군중도서관은 그 종류가 많고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은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에 해당되는 학생도서관¹⁵⁾을 군중도서관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많은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현황을 통해 고찰한 북한의 군중도서관 건축설계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안의 도서관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소장 장서수에 기초한다. 둘째, 북한의 모든 도서관들은 도서의 보관과 관외

대출, 열람 등 기본기능과 함께 강의와 연구 토론 및 발표와 같은 사회교육교양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면모와 규모를 표시하는 수용 가능 열람석수도 장서권수와 함께 평가단위에 포함된다. 셋째, 해당지역(도, 시, 군)의 규모와 기관, 기업소, 교육기관의 배치, 주민구성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초하여 보유해야 할 장서수를 기준단위로 하고 그에 따라 수용능력을 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소장 장서수가 12만부인 경우에 250석, 20만부인 경우에 300석, 25만부인 경우에 400석의 열람석을 표준 설계안에 반영한다. 넷째, 병설도서관인 경우에는 성인도서관과 학생도서관의 장서능력비율은 6:4로, 서고, 열람실, 기타 부분실들의 비율은 1:1:1로 구성한다. 서고는 m^2 당 250부를 기준으로 하여 로작성고, 영상서고, 기본서고(자연과학, 사회과학)로 구성한다. 열람실은 좌석 당 면적을 성인열람실 $2.5m^2$, 고등중학교 학생열람실 $1.8m^2$, 인민학교 학생열람실 $1.5m^2$ 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주요 원칙에 따라 북한은 시, 군급 도서관의 평면 계획을 성인도서관부분, 학생도서관부분, 사무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성인도서관부분과 학생도서관부분은 이용자현관과 직원 현관, 서고, 열람실, 사무실을 별도로 조직하여 기능상 완전히 구분하는 안과, 이용자 현관만 공동으로 해결하는 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중도서관과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을 비교하면 설계기

14) 3, 4장에서 인민대학습당의 건축학적 분석에 대한 주된 논의는 필자도 연구자로 참여한 정책연구과제 "북한 문화시설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기초(12-17)를 대체로 반영한 것임.

15)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개개의 학교 내부에 학교도서관이 있지만 대단히 소규모이고, 주로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는 군중도서관에 병설된 학생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준 등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북한의 도서관 규모가 예상되는 소장 장서수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설계는 봉사대상 기준인구수에 따라 건물면적과 열람석이 결정된다. 따라서 북한은 소장 장서수에 따른 열람석설치 기준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수당 열람석 기준(10만 미만; 200석, 30만 미만; 350석, 50만 미만; 800석, 50만 이상; 1,200석)을 갖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1994, 946).

둘째, 북한의 열람 좌석당 면적비율은 청소년 1.8m^2 , 성인 2.5m^2 로 우리나라의 권장치 2m^2 (청소년)- 2.3m^2 (성인)와 별 차이가 없다.

셋째, 북한의 모든 군중도서관들은 장서의 보존, 열람, 대출 등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강의와 연구 및 토론의 장소로서 사회교육양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도서관마다 녹음강의실, 종합강의실이 있고, 취미활용 공간으로 소조실이 있다. 건축면적 배분비율은 우리나라와는 그 항목이 달라 비교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넷째, 1990년대의 특징으로 북한은 병설도서관 건설을 장려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이 성인도서관과 학생도서관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은 전통적으로 이 두 도서관이 구분되어 왔다. 따라서 병설도서관의 설치 권장은 기능적인 통합이라기보다는 90년대 이후 급속히 어려워진 경제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실용성과 사상예술성,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의 결합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 실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본 평양의 인민대학습당과 지방의 인민학습당이 사상예술성과 민족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선전 선동적 측면이 강조된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의 군중도서관은 대단히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적 건축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구성공간들도 자연채광과 조형적 효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볼 때, 대부분의 도서관 설계가 직사각형 모양의 외관을 갖고 계단 홀 중심식 대칭형으로 설계되는 등 전체적으로 설계방향이 몇몇 형태로 도식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4. 3 대학도서관

북한의 대학은 사회주의적 특징과 북한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된 교육 체계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학실태와는 대단히 다르다.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대학' 등 3개의 종합대학을 위시하여 300여개의 대학¹⁷⁾이 있는데 각 도에 공

16) 앞서 소개한 회령시 인민도서관의 경우는 김일성 생전에 관심하에 계획된 것으로 군중도서관으로서는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도서관으로 볼 수 있다. 채양이나 장식 등 조형적 효과를 상당부분 고려한 도서관으로 인민학교 학생과 고등중학교 학생을 골고루 배려한 흔적이 설계에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군중도서관은 대도시에 몇 있을 뿐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북한의 대학 수는 대략 280-300여개로 추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조선중앙연감1996(p.219)의 기록을 따랐다.

업대학,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공산대학 등이 있으며,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는 공장대학이, 대규모의 협동농장과 수산산업소에는 농장대학, 수산대학 등이 부설되어 있다. 이외에 정치간부양성대학, 체육 및 예술전문학교와 기술계 전문학교가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전체 인구수나 지역적 규모에 비해 많은 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며, 대학의 종류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 면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기업체부설 대학에 가까울 정도로 소규모이다. 대학도서관 역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종합대학과 일부 정치간부양성대학 등 주요 대학을 제외하면 대학도서관의 규모도 크지 않다. 현재 본 연구에서 고찰한 6개 대학도서관의 건축규모와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찰한 6개 대학의 건축규모는 연면적으로 볼 때, 최하 2,800㎡에서 최고 20,202㎡이고, 5층 이상 9층 이하의 건물로 건축되었다.

둘째, 열람석은 300석에서 1,000석까지가 대부분이며, 장서수용능력은 30만부에서 100만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도서관의 내부 열람실 구성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문헌을 별도로 다룬 로작서고¹⁸⁾가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교원열람실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민학습당이나 군중도서관에서의와 같이 록화강의실이나 종합강

의실을 두어 대학도서관에서도 전문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발코니와 전망대 같은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북한의 대학도서관도 현대적 도서관 설비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된 대학도서관은 1970년에 재개관된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과, 역시 1992년에 재개관된 김책공업대학도서관, 그리고 1992년부터 1996년 사이 새롭게 설계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북한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의 평균적인 현황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앞서 소개한 내용들만으로는 그 건축적 특징과 의의 등 분석적인 의미 부여가 어렵다. 따라서 앞서의 현황과 국내의 대학도서관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의 대학도서관의 평균적인 수준을 통해 대강의 가늠이 가능할 뿐이다. 현재 국내의 각종 대학도서관(2년제 포함)의 평균치를 보면, 건물연면적; 10,261㎡, 좌석수; 942석, 장서수; 187,185권 정도이다. 따라서 북한에도 일부 대학도서관들은 국내 대학도서관 규모와 비견될 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대학마다 개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건축 양식을 선보이고 있고, 공간활용 중심의 새로운 건축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전반적으로 획일화된 설계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8) 북한에서 '로작'이라는 말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 의의를 갖는 고전적 저서"를 말하는 것으로, '로작서고'란 별도로 중하게 마련된 김일성의 저작과 김일성관련 저작물을 통칭하여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조선말대사전(상), 1992, p.972. 참고).

5. 결론 및 제언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좀 더 실제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향후 도서관분야의 교류 가능성을 바라보며, 북한 도서관을 건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북한의 도서관 건축유형은 크게 인민대학습당과 일반도서관형태로 구분된다. 인민대학습당은 널리 알려져 있는 평양의 인민대학습당과 본 연구에서 처음 밝혀진 지방의 인민학습당이 있고, 일반도서관 건축물로는 군중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은 그 규모나, 외관에 있어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북한의 수도인 평양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어 가장 대중적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그 외관은 조선식 청기와 지붕의 전통양식과 현대적 미감을 갖춘 독특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도서관으로서의 의의 이상의 종합적인 사회교육기관으로 사회주의적 우월성을 나타내고자하는 기념비적 건축물이기도 하다. 인민대학습당의 이러한 건축적 특징들은 김일성의 이상화를 통해 인민을 정치·교양화 하려는 기본적인 의도 하에서 이루어 졌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이 해방이후, 대도시 건설을 지양하고, 도심집중화를 억제하려는 사회주의적 건축관을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아 전적으로 이행해 왔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군중도서관은 우리나라 도서관들과는 달리 기본적인 도서관 기능 외에 강의와 연구활동 및 토론의 장소로써 즉, 사회교육의 한 축을 맡는 사회교육교양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군중도서관이 당

의 정책을 지도하는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마다 녹음강의실, 종합강의실이 있고, 취미활용 공간으로 소조실이 있다. 또한, 1990년대의 건축설계의 특징으로 북한은 성인도서관과 학생도서관을 합친 병설도서관의 건설을 장려해 왔다. 이것은 기능적인 통합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염두에 둔 고려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북한의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실용성과 사상예술성,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의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 실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양의 인민대학습당과 지방의 인민학습당이 사상예술성과 선전선동적 측면이 강조된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의 군중도서관은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적 건축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00여개의 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며, 대학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는 공장대학 등 회사 내에 부설되어 있는 사내대학의 성격이 많아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도 소규모이다. 또한, 건축적 외형도 대부분 직사각형 구조의 계단홀 중심의 대칭형 건물로 일반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6개 대학의 건축규모는 연건평으로 볼 때, 최하 2,800㎡에서 최고 20,202㎡이고, 5층 이상 9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열람석은 300석에서 1,000석, 장서수용능력은 30만부에서 100만부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귀순자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평균적인 현황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의 내부 열람실 구성에서 볼 때, 김일성과 김정일의 문헌을 별도로 보관하는 로작성고와, 별도의 교

원열람실, 록화강의실과 종합강의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앞서 본 것처럼 남북한간의 도서관 건축문화는 전체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항목별 세부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비교되는 몇몇 특징들만을 정리했다. 지역별 인민학습당은 대체로 그 규모(연건축 면적, 열람석, 장서수)가 국내 공공도서관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되며, 건축양식도 기념비적 성격의 건물로 설계되었다. 군중도서관의 기본적인 설계기준은 도서관 장서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국내의 봉사대상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시설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대학도서관의 건축규모는 남한에 비해 대체로 뒤쳐져 있지만 일부 종합대학 등은 국내 도서관과 비견할만하다. 전체적으로 건축 형성과정에서 북한의 도서관이 입지선정이나 외형적 조건을 우선시 하고는 있지만, 설계구조는 단순하고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관의 건축양식이나 공간구조는 아직 역사적 이론적으로 그 변화과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석적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북한관련 대부분의 연구가 자료 수집의 제한성이나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본 연구도 일부 한

정된 문헌을 고찰한데다 건축학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정밀한 연구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중도서관의 기본 설계방식과 대학도서관 설계의 실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수확이었다. 또한 문헌 분석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인민대학습당 등 북한의 주요 건축물들이 나름대로의 사회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 하에 설계된 것이지, 단지 절대 권력 하에서 체제우위를 위한 '전시건축'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도시와 건축물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사회·문화적 자긍심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시용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인간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 획일화가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가치선호에 대한 선부른 판단은 옳지 않은 것 같다.

향후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한다. 건축학적 의미를 포함하여 남북한간에 관종별로 도서관의 세부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특히 인민학습당과 도서관의 기능적 설계적 차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高哲義. 1986.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圖書館事情. 『圖書館雜誌』(81.8).
- 김수홍. 1992. 금강대학교도서관. 『조선건축』 1호 평양: 공업출판사.
- 김정일. 1992. 『건축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73.
- 김중윤, 고태성. 1992. 원산인민학습당. 『조선건축』 1호 평양: 공업출판사.
- 김태희. 1995. 황해남도인민학습당. 『조선건축』 2호 평양: 공업출판사.
- 김현수. 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리명혁. 1997. 김책종합대학교도서관. 『조선건축』 1호 평양: 공업출판사.
- 림태익. 1992. 시. 군급 도서관 건축계획. 『조선건축』 4호 평양: 공업출판사.
- 문화체육부. 1997. 『북한의 문화예술인·시설·단체』(CD롬 타이틀). 서울: 문화체육부.
- 박명애. 1994. 화학공업대학교도서관. 『조선건축』 4호 평양: 공업출판사.
- 방일선. 1994. 함흥인민학습당. 『조선건축』 2호 평양: 공업출판사.
- 백과사전출판사 편집부 편. 1995~2001. 『조선대백과사전』(1)~(30).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 백철수. 1996. 함흥정성대학교사 및 도서관. 『조선건축』 2호 평양: 공업출판사.
- 사회과학원 편. 1988. 『문학예술사전(상)』.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사회과학원 편. 1993. 『문학예술사전(하)』.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편. 1992. 『조선말대사전(1.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연합뉴스. 2002/7/23(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5&res__id=20646)
- 연합뉴스 민족뉴스취재본부 편. 2000. 『김정일 100문100답』. 서울: 연합뉴스.
- 윤종성. 2000. 시민도서관계획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중앙통신사 편. 1997. 『조선중앙년감』(1996).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최영준. 1996. 회령시인민도서관. 『조선건축』 3호 평양: 공업출판사.
- 통일원 정보분석실 편. 1995. 『북한의 사회문화시설 현황』. 서울: 통일원.
- 한국도서관협회 편. 1994. 『도서관정보관리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편. 2002.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편. 2002. 북한 문화시설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허 균. 1996. 정주택경제대학교도서관. 『조선건축』 3호 평양: 공업출판사.